

진로교육 바로 알기

진로체험의 필수요소, 안전교육!

진로의 방향을 잡고 설계하기 시작하는 고등학생들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교내에서 진행하는 진로 프로그램이나 직접 현장을 찾아가 몸소 경험하는 진로직업·학과 체험이 많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 체험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각종 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구 사용법 등을 사전에 자녀가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학과 체험의 예로,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과제빵 분야는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 전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습에 들어가기 전, 인솔자가 아이들에게 가스 불, 오븐, 칼 등 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숙지시킵니다.

실습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안전한 실습을 위한 인솔자의 지도 아래 직업·학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과 응급처치나 재난대처 등 사후 대처법에 관한 안전교육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간단한 조치를 배울 수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시 대피할 수 있는 기관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자녀가 참여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자료로 국민안전처 어린이 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생활안전 길잡이’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녀를 위한 부모안전교육 길잡이’,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길라잡이’ 등을 활용하실 수 있고, 각 지역의 소방서와 안전 체험관에서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녀 진로상담

미대 입시 준비로 힘들어하는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Q. 중1 때부터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한 고1 딸아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학원 선생님께서도 서울대도 갈 실력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고 하고, 이제 갓 시작한 다른 애들에게도 뒤처지는 것 같다며 학원을 다녀온 날에는 거의 매일 우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미술 입시를 오랜 기간 준비해왔는데 이제 갓 시작한 친구들에게도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따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군요. 그런 따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 시기쯤에 비슷한 슬럼프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실기를 준비해오면서 다소 지칠 수도 있고, 예술적 능력이 시간을 들인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더더욱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자녀의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 많은 부모님들께서 속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입시가 얼마나 남았다고 나약한 소리냐?’, ‘학원비 대주는 것을 고마운 줄 알아라’ 등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뜰이나 힘겨워하는 자녀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술이란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는 기술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면 서울대, 홍익대 등에서 비실기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동안 기본기를 충실하게 닦아온 자녀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원효대사의 눈물까지 복원하고 싶어요 - 박진호(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디지털 문화재 복원전문가로 일해요

2013년 11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황금의 나라, 신라'를 주제로 특별전시가 열렸다. 전시회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 전시물 앞에서 발길을 자주 멈췄다. 신라 문화의 정수, 경주 석굴암이었다. UHD TV에서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원한 석굴암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탄성이 나왔다. 이를 작업한 박진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문화재 복원전문가다. 황룡사 9층 목탑, 백제 무령왕릉,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국내외 중요 문화재를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해왔다. 원형이 사라진 유산은 주춧돌이나 기와처럼 남은 유물에서 실마리를 찾아 가상 현실에 3차원으로 복원한다. 실제 유적을 복원할 때 이런 디지털 복원 영상이 큰 도움이 된다.

■ 인문과 공학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어요

부모님은 그에게 특별히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덕분에 학교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지적인 탐구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성이 무엇인지도 발견했다. 고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었다. 물리, 생물, 천문학 등 자연과학뿐 아니라 기술과 예술, 음악, 인문과학 전 분야에 걸쳐 약 1,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평소 인문과 공학 분야에 모두 관심이 많았던 그가 문화인류학으로 전공을 결정한 후, 디지털 복원이라는 생소한 영역에 눈을 뜬 건

대학교 3학년 때였던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노아의 방주' 컴퓨터 복원 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박 연구원은 성경에 적힌 방주의 규격과 터키의 고고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설계도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50분의 1 크기의 축소모형을 만들었는데, 실험 결과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에서도 안전성을 보였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이후 건축, 미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독학을 하고, 고고학과 기록보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디지털 복원전문가'라는 새 길을 본격적으로 개척해나갔다.

■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박 연구원은 해외 문화유산을 복원할 때는 현지 학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나중에 자신이 떠나도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의 목표다. 그는 디지털 복원기술도 '한류(韓流)'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나 노래, 영화만 한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화를 대하는 자세와 기술 역시 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덕분에 고생은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많았다. 얼마 전 특강 중에 인도네시아 학생에게 "보로부드르 사원을 복원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느꼈다는 박 연구원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직업을 선택할 겁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한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문화콘텐츠 분야)



전국의 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실습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는 안전교육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재난 및 재해 체험, 소방 체험,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체험관은 월요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됩니다. 각 체험관의 상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아래 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름	사이트	문의처
서울	광나루 안전체험관	safe119.seoul.go.kr/gwangnaru/mainPage.do	02-2049-4061
	전쟁기념관 비상대비체험관	www.warmemo.or.kr	070-4109-3225
	보라매 안전체험관	safe119.seoul.go.kr/boramea/mainPage.do	02-2027-4100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	119.daejeon.go.kr/safe	042-609-6888
대구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safe119.daegu.go.kr	053-980-7777
부산	119 안전체험관	http://safe119.busan.go.kr/	051-760-5832
충북	충북도민안전체험관	safe.cb119.net	043-110-4953~4
충남	안전체험센터	safecenter.ndti.go.kr	041-560-0058
전북	전북 119안전체험관	safe119.sobang.kr	063-290-5675~6
강원	365세이프타운	www.365safetown.com	033-550-3101~5